



# 중세 프랑스 문물사회와 양자역학의 이야기 엮어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 차도에서 쓰러져 끝내 숨진 어떤 노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ITC라는 글자가 새겨진 자기 조각을 발견했고 그의 몸 속에서 지금은 소실된 14세기 중세 프랑스의 한 수도원의 그림이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즉 중세 프랑스 이야기와 양자역학 이야기를 씨줄과 날줄로 흥미진진하게 엮어놓은 책이다.

## 「타임라인」

· 마이클 크라이튼 지음 · 이무열 옮김 · 김영사 간

미국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지대. 그 곳을 지나던 부부의 차 옆으로 한 노인이 쓰러진다. 노인은 그 열기에 기다란 사제복을 입고도 땀 한방울 흘리지 않은 모습인데, 근처에는 아무 것도 없다. 발자국을 따라가니, ITC라는 글자가 새겨진 하얀 자기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 소실된 프랑스 수도원 그림이...

혼수상태에 빠진 노인의 손가락 끝 두번째 마디까지 붉은 색을 띠고 있다. 몸 수색을 해보니, 격자 무늬의 별난 그림 한 장이 나온다. 그것은 놀랍게도 14세기에 소실되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중세 프랑스의 한 수도원이다. 노인은 심한 혈액순환장애를 겪다가 끝내 피를 토하며 죽고 만다. 노인은 ITC라는 회사의 초전도 금속 전문가였다.

뉴멕시코의 ITC 회의실. 늙은 연구원의 죽음으로 극비 프로젝트가 폭로될 위험에 처한 회사는 증거 조작을 꾀한다. 음모의 핵은 사장 도니저. 천재 과학자로 이제 세번째 회사인 ITC를 차려 양자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가다. 현재 예일대팀의 유적지 발굴작업을 지원하며 새 사업의 나래를 펴려는 참이다. 죽은 노인의 부검 결과는 의사와 경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손가락은 물론 심지어 심실 벽의 혈관까지도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ITC에서는 시체를 곧바로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버린다.

프랑스 서남부 도르도뉴 강변의 중세 유적지. 예일대의 존 스텐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유적지 발굴작업에 한창이다. 유적은 14세기 중세의 지취들로 카스텔가르와 라로크 성, 생트메르 수

도원과 물방앗간. 그리고 발굴단의 주요 멤버는 단장인 존 스텐교수와 부단장 마렉, 대학원생 크리스와 케이트, 기술자 스텐, 필적학자 엘시 등이다.

ITC의 부사장 다이앤이 뉴멕시코에서 도르도뉴로 날아와 발굴. 복원작업을 독려한다. 그 과정에서 다이앤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튀어나온다. 수도원 내의 식당과 카스텔가르 성벽의 탑 등, 발굴단이 미처 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ITC의 사업은 유적의 복원이 아니라 디즈니랜드 비슷한 '미디벌 랜드'의 건설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사이에, 뉴멕시코의 경찰한테서 자기네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보다 훨씬 상세하고 정확한 수도원의 도면이 이메일로 날아든다.

ITC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느낀 교수가 도니저를 만나

따지겠다고 뉴멕시코로 떠난다. 대장 없이 우왕좌왕하는 발굴단에게 교수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전화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다.

### 6백년 전 종이에 교수 필적이...

교수가 떠난 지 이틀 뒤, 수도원의 지하 묘에서는 한 무더기의 문서 다발과 함께 최근 것으로 보이는 안경 렌즈가 발견된다.

문서 더미에서 'HELP ME! 4/7/1357' 라는 교수의 필적이 발견된 것이다. 검사 결과, 종이도 잉크도 6백년 전의 것이다. 6백년 전의 양피지와 잉크로 씌어진 오늘날의 교수의 필적! 거기에 안경 렌즈도 교수의 것과 똑같은 것으로 판명된다. 교수와의 연락이 끊겼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다.

당혹해 있던 발굴단의 마렉에게 ITC 사장 도니거가 교수를 구하기 위해 도르도뉴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을 셋 골라서 데려오라는 주문의 전화를 한다. 마렉, 크리스, 케이트, 스텐이 뉴멕시코로 떠난다.

뉴멕시코 행 비행기에서 ITC의 또 다른 부사장 고든이 자기네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바로 다른 우주로의 여행인데, 그 중심 개념은 1957년 에버렛이 주장한 다 우주론, 즉 다 세계론이다. 말인 즉 이리했다. 시공간에는 무한한 수의 우주가 우리 우주와 함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데, 양자 거품 속에서 워홀 연결망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넘나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네 회사에서 그 기술의 실용화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광자나 원자 하나, 플라스틱 인형 정도가 아

니라, 생물체,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다른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간을 마치 팩스처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우주로 직접 보낼 수 있다!

뉴멕시코의 ITC 연구소, 대학원생들을 맞은 도니거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그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이 역사기들을 돕지 않고 있다며 자기가 순수한 의미에서 역사학의 발전을 돕는 것으로 위장한다. 그런데 교수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중세 프랑스로 떠났고, 또 한시간 이상 그 곳에 머무르지 말고 기계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규칙을 어겨 실종됐다는 거다. 그리고는 자기네 기술과 시설을 보여주면서 대학원생들을 설득한다. 그 곳과 그 시대를 잘 아는 당신들만이 교수를 구해올 수 있다고. 그리고 한 요원의 시범 전송을 통해 그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해 보인다.

결국 마렉, 크리스, 케이트만이 두 명의 안내 요원과 함께 교수를 구하기 위해 현지로 떠나게 된다. 다섯 사람이 이윽고 전송대에 서고, 기계가 돌아간다. 불꽃이 일며 기계가 점점 작아지더니, 순간 암흑 속으로 빠져든다. 눈 앞에 검은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이 일고, 파란 불꽃을 내는 거품이 나타난다. 거품과의 거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이내 정적이 찾아온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다음 순간, 그들은 카스텔가르 성과 읍내가 내려다보이는 숲 속에 와 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들 앞에 말 탄 기사 6명이 나타나 주인공 셋은 피했으나, 두 요원은 그들에게 들켜 한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명은 기계 안으로 달려들어가 수류탄을 뽑아들고 죽는다. 재빨리 교수를 구해 돌아오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크리스가 중세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며 사정이 꼬여간다. 그럼에도 우리의 용감한 주인공들은 물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기로 다짐한다.

요컨대, 이쪽에서는 전송대가 파괴되어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저쪽에서는 임무 완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설정 하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축, 즉 중세 프랑스 이야기와 양자역학 이야기가 씨줄과 날줄로 엮이며 전개된다. 주인공들의 역정을 따라가며 중세 프랑스의 문물과 사회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한편, 전송실 복구 과정을 통해 양자역학과 원격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작가 특유의 스릴러적 장치, 즉 철체 절명의 위기와 극적인 반전, 다양한 인간들이 펼치는 온갖 음모와 술수,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대담무쌍한 활약상이 곳곳에 깔려 있다.

이후의 스토리는 양자역학보다는 중세 프랑스 사회에 더 중점이 주어진다. 작가의 말따따나 시간여행, 다른 우주로의 여행은 아직 공상이지만, 중세 유럽 사회 묘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⑤

이 무 열 (번역가)